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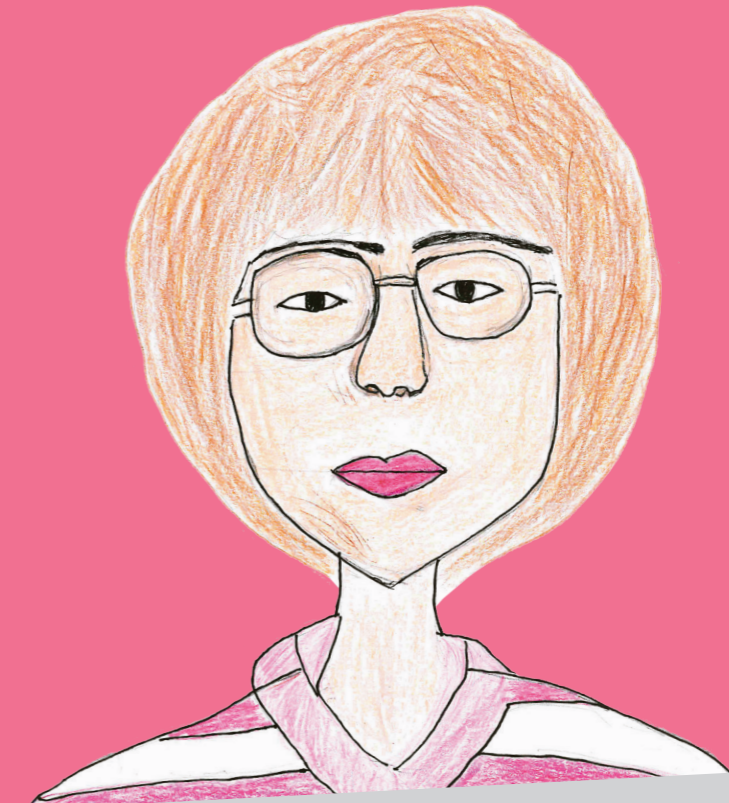
人
스토리
서른 두 번째
노정숙



카페 문이 열리게 뽕뽕
떨어뜨림 되어 보이는 한 무리의
학생들이 들어온다
옛된 원화로 무가 그리 재미있는지
관찰거리며 웃는 여학생들 교복이 예쁘다
나도 텅달아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
문득 떠오른 옛 생각에 미소가 사라진다
저 나이에 나는 학교대신
알을 허러 갔었지

'수업' 하나

이야기·그리기: 노정숙 듣고 쓰기: 김현우·곽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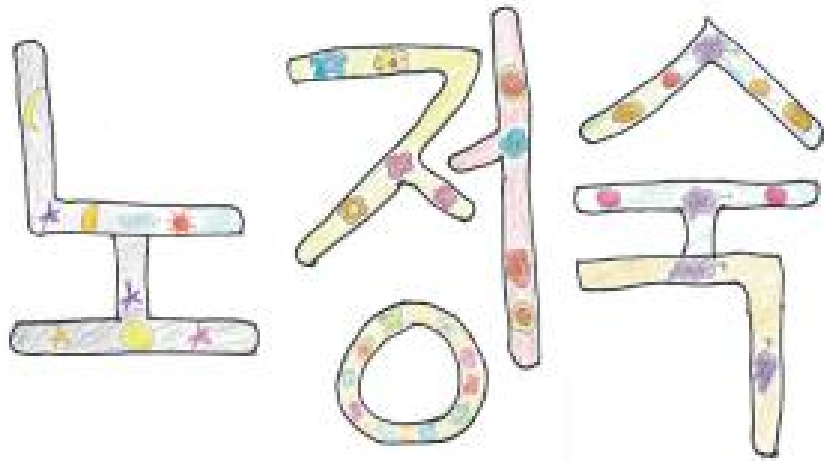


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人스토리 서른 두 번째 노정숙

‘수업’ 하나

이야기·그리기: 노정숙 듣고 쓰기: 김현우·곽은서



카페 안에서



카페 문이 열리며 열일곱, 열여덟쯤 되어 보이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온다. 옛된 얼굴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는 여학생들. 교복이 예쁘다. 나도 덩달아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 문득 머리를 한 번 좌우로 비스듬히 저어준다. 제 나이에 나는 약간 귀찮음을 느끼지 않는다.

오후 2시 50분. 토요일과 온전히 같다. 카페 기계 옆으로 자리 잡은 창문 밖으로 바깥이 훤히 다 거울같이 보인다. 어느새 다들 떠나고, 세차할 한 번만 대산대 할까한 대아름에 들어 있다. 희우할 것 같아는 한들 들만 노르북만 제아르르고 있는 학생에게 나도 오프에 서있어 간다.

나는 지금 열일곱에 한 번 일하러 오는 카페에 있다. 도계동 카페. 남의 시야에 있는 푸른색의 작은 '일과 카페'라고 써진 다들 알 것이다. 여기서 일한 지로 어느덧 1년이 넘어간다.

오늘은 이따기까 카페를 만드는 데 손이 번들다. 푸른색을 칠하려고 칠러를 손으로 돌려 간다. 소리를 주면 기계에서 나오는 불꽃이 흘러나오고 있다. 자원을 보니 자원을 소모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간다. 내 마음을 깊은 심해에 이끌려 떠나고 있는 푸른색이 하루를 떠돌다. 어떤 시절 찾아올까. 어떤날이 올까. 불꽃이 반짝이는 바다처럼 아름아름한 물속에, 세운 커트라인 밑에서 살았던 나.



